



올해 전국대회 상위권 입상을 노리는 금성중 사이클팀은 나주사이클경기장에서 매일 5시간씩의 고강도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스포츠 포커스

나주 금성중 사이클팀



왼쪽부터 남백수 감독·강석훈·김관후·김지훈·이주현 선수·김현민 코치.

지난해 대통령기 시도대항 단체 우승  
2004년 창당... 신흥 명문팀 자리매김

동계 산악훈련으로 심폐기능 키워  
하루 5시간씩 기술연마·도로 훈련도

# 소년체전 상위권 향한 '4총사'의 힘찬 질주

한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소년체전에서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오늘도 힘찬 질주를 하고 있는 4명의 사이클 꿈나무들이 있다.

바로 금성중 사이클팀 김지훈(3년)·이주현·강석훈·김관후(이상 2년)가 그 주인공들이다.

아직은 친구들과 장난하고 재미삼아 자전거를 타고다닐 정도로 옛뎨 보이는 어린 학생들이지만 유니폼을 입고 사이클에 올라앉은 모습은 어느 기존 선수들 못지않게 늙고 다부져 보인다.

지난 2004년 창당한 금성중 사이클팀은 이제 '사이클 초년생'의 티를 벗고 전국 정상에 이름을 새긴 신흥 명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단체전 우승과 전국소년체전 200m와 500m 개인전 금메달, 그리고 단체 스포린트 은메달 등 창단 4년만에 그들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제 금성중 4총사가 지난해 영광의 순간들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4명의 선수들 모두 운동을 시작하지 불과 1~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루 하루가 다르게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이 스스로 지원한 사이클팀이기에 더욱 적극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이클 4총사'는 지난 동계훈련 동안 체력훈련에 주력했다.

특히 사이클이 전신의 고른 체력분배가 필요한 만큼 상·하체 단련에 더욱 신경 썼다. 금성산 등산로 달리기와 계단 뛰어오르기 등 고강도 훈련도 '4총사'들은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 또한 심폐기능을 키우기 위한 산악자전거훈련도 빼먹지 않고 주 1~2회씩 실시했다.

이렇듯 하루 8시간씩 세달간의 긴 지옥훈련을 마친 이들의 모습은 제법 탄탄한 근육으로 기존 사이클 선수들의 체형을 닮아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눈빛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학이 끝나고 평일 훈련은 하루 5시간씩 기술연마에 집중한다. 나주사이클경기장을 달리며 팀웍과 전술훈련에 집중했다. 또한 동산대~영광구간 왕복 80km를 달리는 도로훈련을 통해 지구력도 키워오고 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선수들 개인별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km 개인추발이 주목종목인 김지훈은 남들보다 늦은 중 2 때 운동을 시작했지만 순발력과 지구력이 뛰어난 선수로 올해 메달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

신장 170cm·체중 78kg의 좋은 체격조건을 갖춘 이주현은 순발력이 탁월해 500m에서 일을 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난 동계훈련 중 다친 부상으로 제대로 훈련일정을 마치지 못하게 아깝다.

어느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한 강석훈도 순발력이 뛰어나 단거리인 200m에 도전한다. 운동 시작하지 불과 5개월 정도 밖에 안된 김관후도 적극적인 자세로 기초훈련에 충실하고 있다.

어린 선수들을 내일의 사이클 기대주로 육성하는데 지도자들의 정성도 선수를 못지않다. 바로 남백수(56) 감독과 김현민(25) 코치가 4총사들의 뒤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

창단 4년만에 팀을 전국 정상까지 끌어올린 남 감독은 "어린 선수들의 기량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기 때문에 중학생 선수들의 1년차는 전격변화에 큰 요인이다."

지난해는 3학년들이 주축을 이뤘지만 올해는 실전경험이 부족한 2학년들이 많아 작년 만큼의 큰 기대는 사실상 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체력이나 근성만큼은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위권 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훈련할 때만큼은 호랑이 선생으로 변하는 김 코치도 "애들이 힘들어 할때 더욱 큰 소리로 다그치는데 사실 마음 아프다. 하지만 이런 고비를 넘어야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겁게 지도한다."면서 "비록 어린 학생들이지만 어느 선배 선수를 못지않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게 우리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실 금성중팀이 다른 팀에 비해 열악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젊은 선수층이다. 대부분 6~7명의 선수로 구성되어있는데 반해 금성중은 실전투입 멤버가 4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을 부상이라도 당하면 전력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렇듯 힘든 조건 속에서도 금성중 사이클팀은 굴하지 않고 계속 앞만 보며 질주한다.

꾸준한 훈련을 통한 탁월한 기량과 강한 정신력으로 금성중의 저력을 보여주자 하는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금성중 4총사가 올 전국대회 무대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활짝 웃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 062) 225-1688 H.010-3565-2888

※ 위치: 자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완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회매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자실 및 재테크상담 대환영

지역	소재지	면적	층/승수	감평가	최저가
서울	유촌동 버들호반2차	34	17/15	1억4500만	1억
	동인동 대주파크빌2차	46	18/9	1억8000만	1억2800만
	화정동 삼익맨션	42	12/8	1억2000만	8400만
	마북동 힐빌가	32	15/8	1억9000만	1억3300만
	광명하이츠	32	25/4	8800만	8100만
	화정동 삼익	42	12/8	1억4000만	7800만
	쌍문동 성우빌2차	34	15/12	1억7000만	1억1900만
	치현동 중흥1단지	39	17/15	1억9000만	1억3300만
	금호동 남일파크	42	18/4	1억8000만	1억2800만
	쌍문동 부건빌고층	32	19/17	1억3500만	9400만
	금호동 라안아파트	37	17/9	1억2000만	8400만
	금호동 금호베스트빌	38	18/18	1억9000만	1억3300만
부산	중산동 금호타운	39	20/20	1억8000만	1억1200만
	중산동 호반다솜시빌	33	20/7	1억4000만	9800만
	금호동 도시공사2단지	24	15/13	8200만	6580만
	진월동 삼익세라피아2차	32	20/8	1억2000만	8400만
	중산동 신천그린	32	15/8	8000만	5800만
	주월동 명지	44	20/13	1억3000만	9100만
	중산동 대치아파트	48	12/2	1억2500만	8750만
	주월동 명지아파트	44	20/13	1억3000만	9100만
	중산동 금호타운	32	20/9	1억3000만	9100만
	주월동 영우에다빌1차	39	15/8	1억5000만	1억5000만
	진월동 고운하이힐리스	32	12/1	1억4000만	9800만
	대구	각화동 금호아파트	31	14/4	9000만
문흥동 현대1차		48	18/8	2억	1억4000만
일곡동 현대2		24	19/15	7800만	5300만
매곡동 서광인빌파크		37	22/1	1억2000만	8400만
우산동 현대아파트		55	15/8	1억8000만	1억1200만
동원동 푸른마을4단지		32	20/11	1억2000만	8400만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 (062) 227-9600 FAX: (062) 227-9500

발기부전, 당뇨, 전립선 비대 현상(양가색) 부작용 3일지속 관동(경도노루해결) 무료상담 20회분 66,000원 H-P 010-6218-1249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개발한 '큰놈'

저렴한 가격 99,000원

파워마카 100(분말) (마카원료로만 100% 함유된 제품임)

1개월분 90,000원 / 2개월분 150,000원

☎ 010-8558-4114 / 02-2672-0454

☎ 010-8952-4114 / 02-2633-4110

서울 영등포 6가 11번지 영원 B/D 310호 글로벌테크

☎ 130035-51-119565